

고창녕 전설의 구성과 기층 공동체의 정치 윤리*

한정훈(안동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수령 고창녕과 정치 윤리의 한계 |
| 2. 기록된 일물의 행적과 이야기의 구성 | 5. 결론 |
| 3. 나열된 이야기와 만들어진 이름 | |

1. 서론

고창녕 전설은 영남 지역, 특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전설의 고창녕은 소년 급제 후에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다. 그는 어리다고 알보는 아전들을 제압하고, 해결이 어려운 살인 사건을 명쾌하게 처리한다. 또한 고창녕은 백성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존경을 받는다. 고창녕 전설은 명관(名官, 원님)설화로서 지역의 인물전설로 분류된다.¹⁾ 고창녕은 실존 인물의 이름이 아니다. 조선 영·정조 때의 관료인 고유(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122).

1) 고창녕 전설은 영남 지역을 벗어나면 쉽게 찾을 수 없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고창녕 전설 1편이 채록되었는데, 주인공은 고창녕의 실제 모델인 '고유(高裕)'로 명명되어

裕)가 창녕현감으로 부임하면서 붙여진 별칭이 ‘고창녕’이다. 고유의 자는 순지(順之)이며, 호는 추담(秋潭)이다. 그는 1722년 경상도 상주에서 태어났으며, 1743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의 길을 걷게 된다. 고유는 예조·병조정랑, 성균관전적, 사헌부 지평, 창녕현감, 연원찰방, 안주목사 등 일생 동안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²⁾ 이러한 고유의 이력 중 고창녕 전설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 창녕현감이다.

입말로 전승되는 실존 인물 이야기는 나름의 서사 법칙이 있다. 학문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한 시대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등 인물의 유명세가 입말로 전승되는 인물 이야기 구성의 우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학문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상층 담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기층의 담론으로서 상층 담론과 일정한 격절을 내재하며 구성된다. 실존 인물이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포착되기 위해서는 기층민과 실제적 접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 접촉이 부재한 경우, 상층 담론에서 활발히 언급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에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의외의 인물이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고유가 그런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나름 평탄한 관료 생활을 했고, 관직은 말년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그는 문학이나 학문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는 ‘고창녕’이라는 이름으로 영남 지역에서 입말로 활발히 전승되는 인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기존 관리들과 다른 모습으로 기층민과 활발히 접촉했다는 것이다. 물론 고유의 출생지가 경상도이고, 관리로서 첫 외직이 경상도사(慶尙都事)였다는 것도 이야기 전승의 이유로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창녕 전설의 구성과 전승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있다.

2) 정종노, 김남기 옮김, 〈행장〉, 『추담선생문집』, 보문사, 1996(1895), 352-367면 참조.

사대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입말로 전승되는 인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두 번이나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해 준 이서구, 봉당정치의 패배로 삼척부사가 되어서 '척주동해비'를 세운 허목,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훈민가>와 <관동별곡>을 지은 정철 등이 있다. 이들은 지역민들이 입말로 구성한 인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수령으로서 포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이인(異人)으로까지 묘사된다.

그런데 문체는 실존 인물이 수령으로 어떤 행적으로 보였는가를 기록으로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들이 내직에 있을 때는 『조선왕조실록』 등 사서(史書)에 단편적으로나마 기록이 남아 있으나, 외직으로 나갈 때는 인물들이 조정으로 보낸 공적 문서 외에는 행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다. 그렇다고 실존 인물의 외직 활동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의해서 작성된 행장이나 묘갈명 등이 공적 기록에서 보이지 않은 인물의 행적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기층민이 입말로 전승하는 인물 이야기는 기록의 공란을 채워주기도 한다.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기층의 문학이며 역사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층의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입말로 전승되는 실존 인물 이야기는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화(史話)', 둘째는 역사적 사실과 기층의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전설(傳說)', 마지막으로 허구적 이야기로만 구성되는 '고담(古談)'이 있다.³⁾ 세 갈래의 이야기는 기록이 부재한 실존 인물의 행적과 모습을 재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실존 인물을 둘러싼 사회 및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나름의 단편을 제공한다.

입말로 전승되는 실존 인물 이야기는 사실과 허구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실존 인물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허구라는

3)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173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기층의 해석을 담고 있다. 실존 인물 고유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임면(任免) 사항, 인물평, 상소장 등이 있으며, 『국조방목』에 청백리로 추천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고유는 글을 많이 지었으나 모두 버리고 “세상에 소위 문집이라 함을 본받아서 나에게 누됨이 없게 하라”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문집을 발간하지 말도록 했다.⁴⁾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손들이 고유의 말을 어기고 문집을 발간하여 그의 생전 행적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과 입말 전승은 길항관계에 있다. 두터운 기록은 사실로 인식되어 허구로 뺄어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제한한다. 반면 얇은 기록은 사실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켜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하는 허구의 구성을 활성화시킨다.⁵⁾ 이런 측면에서 고유의 이야기는 후자에 속한다. 특히 실존 인물 이야기는 ‘이름’ 자체가 증거물이 되어서 사실의 구심력 작동에 중요 인자가 된다. 그런데 영남 지역의 화중(話衆)은 ‘고유’의 이름을 ‘고창녕’으로 바꿔 부르고, 심지어 ‘고유’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창녕’을 실존 인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 화중은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존 인물의 이름을 쉽게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창녕 전설은 이러한 양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고창녕 전설의 이와 같은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우선 고유의

4) 정상박, 「고창녕 전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7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68면.

5)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17면 참고.

6) 고창녕 전설은 원닐설화·명관설화·송사설화 연구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고창녕 전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설화의 전승 양상과 전승 집단의 의식, 사회적 의미, 문화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상박, 「고창녕 전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7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권복순, 「고창녕 이야기 연구」, 한국학회 진주지회 제14차 학술발표회, 2001; 김선미, 「고창녕 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장민석, 「고창녕 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승준, 「구전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지평 모색-고창녕 이야기

어떤 행적이 기층에 포착되어 이야기로 구성·전승되었는가를 살핀 후에, '고유'가 '고창녕'이 되면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화중은 고창녕 전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기록된 인물의 행적과 이야기의 구성

영조는 1757년 특명으로 고유를 창녕현감에 임명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지역민 일반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령은 짧게 몇 개월, 길게 1~2년 정도 부임지에서 머물다가 떠나기에⁷⁾ 지역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요, 지역민과 내밀하게 소통하는 것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고유가 이야기에서 긍정적으로 포착된 것은 기존의 수령과 달리 지역민의 고충 해결에 나름의 노력을 했기에 가능했다. 그의 노력은 지역민에게 포착되어 기록된 행적과 다른 층위의 입말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었다.

그래 가 한 해 어느 헨데, 창녕 고을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백성이 도탄에 들었거등요, 이래 가지고, 그래 가 지금 걸으믄 군수고 도지사 아입니껴? 그래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그래 우리 고을에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도탄에 들었으니끼네, 돈 천 냥만 돌려.” 그래 하도 도지사가 어이가 없어 가, “천 냥, 천 냥?” 이래 딱... “일구이언(一口二言)이면 이부지자(二父之子)라.”고 딱 붙이가, 그래 천 냥 얻으러 가 가지고 이천 냥을 얻어 가 와 가지고, 그래 가 그 창녕군에 갔다 풀어 먹이 놓이 마 돈 풍년이 저 가지고, 그래 그 백성들이 잘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⁸⁾

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7)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부임육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 『역주 목민심서1』, 창비, 2018, 34면.

과거 기층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고픔이었다.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해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춘궁기는 찾아왔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춘궁기를 버텨내야 했다. 수령이 가장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진휼(賑恤)이었다.⁹⁾ 이야기의 고창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¹⁰⁾ 하지만 그는 관찰사와 대면하면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대담함으로 지역민을 진휼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구해온다. 이야기의 고창녕은 담대한 모습으로 지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긍정적 수령으로 형상화된다.

이야기의 서사 전개는 간단하다. 관찰사와 수령 고창녕의 대결이다. 이 대결은 고창녕이 언어유희로 관찰사를 압도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이야기의 사건은 현실에도 있음직한 일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허구에 기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령이 관찰사와 언어유희로 진휼할 돈을 구해 온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야기가 실제적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유는 생전에 고을 수령으로 두 번 부임한다. 처음은 창녕현감이었고, 두 번째는 안주목사였다. 그런데 고유가 수령으로 부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한 일이 지역민의 빈곤 문제 해결이었다.

고유가 창녕현감으로 부임할 때, 지역민은 거듭된 흉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고유는 수령으로 부임하자 사방에 두루 물어서 지역의 병폐를 고쳐나갔고, 인애(仁愛)와 엄명(嚴明)으로 고을을 다스렸다. 그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은 안정을 되찾았다.¹¹⁾ 고유는 안주목사로 부임한 직후 관전(官田)을 열어 뽕나무를 심게 하고 혜민고(惠民庫) 민호전(民戶錢)을 개혁했다.

-
- 8) 「고창녕의 빈민구제」, 『대계』 8-7, 159-160면.
 9) 지방 관리의 행정은 향후 그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진휼 행정은 관리가 기층민과 직접 접촉하며 자신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김무진, 「조선후기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 『학림』 제36집, 연세사학연구회, 2015, 149면.)
 10) 예문의 앞 삽화는 아전들이 어린 수령 고창녕을 업신여기고, 이에 고창녕이 수수대 문답으로 아전들을 굴복시킨다는 내용이다. 어린 수령으로 형상화된 고창녕의 의미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11) 정종로, 김납기 옮김, 〈행장(行狀)〉, 『추담선생문집』, 보문사, 1996(1895), 355면.

뿐만 아니라 허호(虛戶)를 조사하여 지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었다. 안주 사람들은 고유를 이원익(李元翼, 1547~1634)에 비유하며 칭송했다. 고유가 임기를 마치는 날, 지역민은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¹²⁾ 행장이 인물을 숭양하는 차원에서 윤색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고유가 수령으로서 행한 일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고유가 지역민에게 긍정적으로 포착되는 지점은 또 있는데, 그것은 다른 관리와 차별화된 행보였다. 고유가 안주목사로 있을 때, 병사(兵使) 김상옥(金相玉)이 음식과 거처를 과하게 요구했다. 이 때문에 병사를 공봉(供奉)하는 지역민의 고충이 심각했다. 고유는 이 사실을 알고 김상옥과 크게 대립했고, 결국 그의 행동을 시정케 했다. 관찰사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면, 병사는 군권을 관장했다. 수령은 직급상 병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¹³⁾ 고유는 갈등의 대상이 그의 상관이어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고유의 행보는 창녕현감 시절에도 발견된다.

조선시대 기층민의 가장 큰 고충은 세금 납부였다. 안정적인 세곡 운송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업무였다. 관리들은 세금을 수취하여 조정까지 운송하는 일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경상도 일부 지역은 임진왜란 이후 전세(田稅)를 조정에 납부하지 않고, 왜침 방지를 목적으로 수군(水軍) 군량미 등으로 납부했다. 17세기 이후 경상도의 세곡 선운이 재개되는데, 운송은 조운(漕運)이 아닌 경강상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강상인은 세곡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고패(故敗), 투식(偷食), 화수(和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득을 편취했다.¹⁴⁾ 경강상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세곡 결원은 지역민이

12) 정종로, 위의 글, 361-362면.

13) 이상엽, 「조선 후기 지방인사행정체계와 수령의 위상」, 『동방학』 제8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2, 169-170면.

14) 고패는 선주를 비롯하여 사공·겨군이 미리 적재된 세곡의 일부를 빼돌리고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고, 투식은 운송하는 곡식을 횡령하여 상납하지 않는 행위이다. 화수는 일부러 물을 타서 세곡의 양을 불려 그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이다.(문광균, 「17~1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삼조창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책임져야 했다. 이에 1759년 경상도 관찰사 조엄(趙巖, 1719~1777)은 세곡 운송의 폐해를 없애고자 조운을 재개하려 한다.

조엄은 창원의 마산포(馬山浦)와 진주의 가산포(駕山浦)를 좌·우조창으로 지정하고, 조창별로 세금을 납부할 지역과 물품을 정한다. 창녕은 마산포에 소속되어 세곡을 납부해야 했다. 창녕현감 고유는 조엄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글을 보낸다. 고유는 창녕에서 마산포까지 140~150리 거리가 되어서 육로를 이용해 세곡을 운송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마산포까지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세곡과 맞먹는 운송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운송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민이 부담해야 했기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두 배에 이르렀다.¹⁵⁾ 이에 고유는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창녕 사람들의 세금을 무명과 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찰사에게 요청한다.¹⁶⁾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의 요청은 몇 차례 관찰사에게 거부당한 듯했다. 그러나 고유의 끈질긴 요청은 결국 수용되어서 창녕 사람들은 곡물 대신 무명과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고유는 기층민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령이었다. 세금 문제는 조선시대 기층민이 관과 직접 대면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고유는 이러한 문제를 기층민의 입장에서 해결했다. 심지어 다른 관리와 대립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고유의 모습은 기층민에게 차별성을 부여하며 긍정의 이미지로 포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유의

대동문화연구원, 2014, 280면.)

- 15) 세곡 수취와 운반은 모두 지역민의 몫이었다. 영조 35년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는 상소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영남의 세(稅) 대동을 쌀로 바치는 진주 등 고을이 해마다 수봉할 때 소민(小民)들은 곡의 수로 어렵게 바치니 정말 가엽습니다. 상납할 때는 세곡을 짊어지고 포구로 가니 그 역시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포장하여 싣고 떠난 뒤에는 감색, 사공, 격군의 농간으로 패선이라 핑계대고 투석하니,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사피 합니다.”(『비변사등록』 136책, 영조 35년 4월 14일.)
- 16) 고유, 김남기 옮김, <여조순상엄(與趙巡相巖)>, 『추담선생문집』, 보문사, 1996(1895), 209-212면.
- 17)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2월 8일.

행적이 관찰사를 농락하면서 진흙할 돈을 구해오는 수령의 모습으로 이야기화 됐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기록된 고유의 행적과 비교하며 이야기화 되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 ① 어느 날 아침 고창녕의 밥상에 이파리 하나가 떨어진다.
- ② 고창녕은 통인에게 이파리의 나무가 있는 곳을 묻는다.
- ③ 통인은 이파리의 나무는 합천 해인사에만 있다고 답한다.
- ④ 고창녕은 합천 해인사로 가서 이파리의 나무를 조사한다.
- ⑤ 한 여인이 목에 칼을 꽂은 채 죽어 있다.
- ⑥ 고창녕은 여인의 목에 꽂힌 칼이 중의 것임을 알게 된다.
- ⑦ 고창녕은 합천 해인사의 중들에게 갖고 있는 칼을 꺼내게 하고 살인에 사용된 칼을 그 속에 몰래 놓아둔다.
- ⑧ 고창녕은 중들에게 칼을 찾아가게 하고, 살인에 사용된 칼의 주인을 묻는다.
- ⑨ 고창녕은 범인을 찾아내서 처벌한다.¹⁸⁾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원혼(冤魂)형 설화류에 해당된다. 원혼형 설화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원혼이 되어 자신의 원한을 호소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 이것이 원혼형 설화의 기본 구조이다.¹⁹⁾ 그런데 고창녕의 원혼설화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가해자 남성이 증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수령 고창녕과 중이 주검으로 발견된 여인으로 인해서 대립을 형성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화중은 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원혼형 설화에 해결자로서 고창녕을 기입하였으며, 남성 가해자로 중을 지정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의 표층적 접근보다 고유의 행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유효할

18) 「고창녕 일화(1)」, 『대계』 8-8, 578-580면.

19)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6-67면.

듯하다.

이야기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고유의 기록이 있다. 고유가 창녕현감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권세를 부리던 남봉(南鵬)이라는 중이 있었다. 남봉은 조정의 재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랑하면서 그 위세를 빌려 방자한 행동을 일삼았다. 앞선 수령이 남봉을 징치하려 했으나 오히려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창녕현감으로 부임한 고유는 남봉의 행태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남봉을 옥에 가두었다. 조정의 재상은 남봉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고유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고유는 남봉을 곤장으로 쳐서 죽였다. 이와 함께 다른 기록도 있다. 초계(草溪)에 사는 염씨의 딸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관을 찾는다. 그녀의 호소는 무시되고, 관졸의 손에 이끌려 쫓겨났다. 여인은 관졸에게 잡힌 손을 잘라 자결했다. 조정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한다. 관찰사는 판관을 두둔하며 여인의 죽음이 정절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유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여성의 자결이 정절의 문제였음을 주장한다. 결국 조정의 관리와 관찰사는 고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성의 원통함은 풀리게 되었다.²⁰⁾

행장의 기록은 고창녕 원혼형 설화가 지닌 중요한 두 화소를 보여주고 있다. 남봉의 기록은 수령 고창녕과 중의 대립으로, 염씨의 딸에 대한 기록은 중에게 능욕을 당한 후 살해된 여성의 원한과 연결된다. 고유의 행적은 두 화소로 전환되어 고창녕 원혼형 설화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되는데, 화중은 왜 기존의 원혼형 설화에 기대어 고창녕 이야기를 구성했는가이다. 입말로 구성되는 기층의 이야기는 새로운 서사를 창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는 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다.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고 이를 이야기로 구성할 때, 기층의 화중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서사와 접속이 가능한가를 우선 타진한다. 그리고 접속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존의 서사에 새로운 경험을 기입하여 이야기로 전승한다.

20) 정종로, 앞의 글, 355-357면.

이러한 사례는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에서 자주 발견된다. 고창녕 원혼형 설화도 고유만의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층민은 그 행적을 화소로 집적시켜서 기존의 원혼형 설화에 습합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고창녕 원혼형 설화는 지역의 증거물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사실로 인지된다. 창녕에는 고유와 관련된 두 개의 비(碑)가 있다. 그 중 하나인 <현감고유불망비(縣監高裕不忘碑)>는 창녕읍 옥천리 관룡사로 가는 길목 옆 논두렁에 묻혀 있었다. ‘불망비’는 지역민의 무관심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불망비’의 내력은 『창녕군지』에 실려 있다. 처녀가 중에 겁탈 당한 후에 자결하고, 원혼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 수령 고유가 사정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면서 마을은 안정을 되찾는다.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고유의 불망비를 세웠던 것이다.²¹⁾

고창녕 원혼형 설화와 『창녕군지』의 기록은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 입말의 고창녕 원혼형 설화는 살인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창녕군지』의 기록은 여귀 해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보호가 중심 주제이다. 고창녕 원혼형 설화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가 범상치 않은 수령임을 보여준다. 반면 ‘불망비’가 세워진 내력은 고창녕 원혼형 설화와 조금 다르다.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건립한 비에는 공적 차원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불망비가 마을과 절 사이에 놓여 있다는 환경적 조건이 고창녕 원혼형 설화를 끌어들이는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것이고, 증거물과 이야기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원의 결과와 마을 공동체의 안정을 연결시키면서 『창녕군지』의 기록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두 이야기는 ‘전설의 역사화’ 내지 ‘역사의 전설화’에 대해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층민이 수령 고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이다.

전설의 전승자들이 증거물에 집착하고, 증거물의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21)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하)』, 창녕군지편찬위원회, 2003, 151면.

다 하더라도, 사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고 전승해 온 이야기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화적 체계 속에서 기억될 만한 것들이다.²²⁾ 화중이 고창녕 원혼형 설화에서 기억될 만한 것으로 남겨놓은 것은 서사의 내용이 아니다. 바로 실존 인물 고유가 지닌 수령으로서의 모습이다. 이야기의 고창녕은 자신의 밥상에 떨어진 이파리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기록의 고유는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정을 듣고 직접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목민관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사물에 비취보고, 어진 뜻이 미물에게까지 미친다면 그 명성이 오래 갈 수 있다. 수령은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 작은 동물, 주변 환경의 변화까지 신경을 쓰면서 행동해야 한다.²³⁾ 두 이야기는 이런 수령의 자세를 고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① 한 여인이 시택에서 쫓겨나 창녕에서 재가한다.
- ② 재가한 여인은 길을 지나가는 전 남편을 만난다.
- ③ 여인은 전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삶은 닭으로 식사를 대접한다.
- ④ 전 남편은 여인이 내온 닭을 먹고 죽는다.
- ⑤ 고창녕은 여인이 전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믿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일련의 과정을 재현하게 한다.
- ⑥ 고창녕이 삶은 닭을 개에게 주었고, 개는 닭을 먹고 죽는다.
- ⑦ 고창녕은 초가 지붕에서 지네를 발견하고 여인의 누명을 벗겨준다.²⁴⁾

위의 이야기는 사건의 정황도 구체적이며, 서사 진행에 있어서 짜임새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와 관련된 고유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야기는 입말로만 전해 온다. 제보자는 이야기가 창녕군 남곡면에 있는 고유의 비와 관련이

22)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의 유형과 그 서술원리」, 『한국학보』 제26(2)집, 일지사, 2000, 95-96면.

23)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형조육조(刑曹六條)』 제1조 청송(聽訟), 『역주 목민심서4』, 창비, 2018, 373-374면.

24) 「고창녕 일화(1)」, 『대계』 8-10, 425-427면.

있다고 강조한다. 제보자가 지정한 비는 <현감고후유청덕애민선정비(縣監高候裕清德愛民善政碑)>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비 중 하나이다. 정상박은 '선정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정리하여 여인의 실제 고향과 이혼 사유, 전 남편과의 재회 과정을 상술하기도 했다.²⁵⁾ 이야기는 선정비와 결착되면서 사실성을 확보한다. 조선시대 살인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된다. 제보자는 “뭐 살인났다 카모 동네 소(沼)를 빼거든”이라는 말로, 살인 사건이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시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인과 이웃 등은 관의 조사를 심하게 받게 된다. 심지어 관리의 비위라도 굽게 되면, 형틀에 매이고 옥에 갇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조사 나온 관인들을 먹여야 했고, 옥에 갇힌 사람을 꺼내오기 위해 상당한 뇌물을 관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사건 조사가 끝날 무렵이면 사람들은 원수가 되고, 마을은 풍비박산이 되었다.²⁶⁾ 그런데 이런 현상의 책임은 올곧이 사건을 관장하는 수령에게 있다. 수령은 지역 사회와 이권으로 얽혀 있는 아전들에게 조사를 맡기고, 그들의 보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뿐이었다.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기층민에게 돌아갔다.

고창녕은 붙잡혀 온 여인을 애잔히 여기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간다. 이야기의 표면만 본다면, 수령 고창녕의 모습은 상당히 감성적이어서 허구적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고창녕의 모습은 실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령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였다. 정약용은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수령과 관리는 천권을 대신할 뿐이라 말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 관리들은 긍외(조심하고 두려워함), 부호석만(착오 없도록 밝혀냄), 만흔(방심하여 사리에 어두움)하지 않으면서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 죽여야 할 자를 살리면서도 편안히 살아간다고 비판한다.²⁷⁾ 관리는

25)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26-27면.

26)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형조육조(刑曹六條) 제2조 단옥(斷獄)>, 『역주 목민심서 5』, 창비, 2018, 43-44면.

‘흡혈(飲血)’의 자세로 사건을 신중히 다루고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야기의 고창녕은 현실의 관리가 살인 사건을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여인은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이야기 표면에서 전 남편을 살해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수령이 사건을 엄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선부른 판결을 내린다면, 여인은 필시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공격 말하기가 서툰 여인은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웠다. 고창녕은 이런 여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건을 검증하기 시작한다. 그는 여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건을 재현케 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낸다. 다른 관리와 차별화를 보였던 실제 고유의 모습이 이야기에서 굴절되어 보여 지고 있다. 나아가 고창녕이 마을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인 사건을 처리한 행위는 고유의 ‘선정비’ 건립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증거물은 허구와 비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의 내용을 실제나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작용한다.²⁷⁾ ‘선정비’ 자체는 실제 사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화중은 ‘선정비’라는 증거물에 고창녕의 이야기를 덧대면서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부여한다. 증거물과 결합되어 사실성을 확보한 이야기의 고창녕은 실존 인물을 가리키면서 수령 고유의 인물상을 주조한다. 고유는 분명 이전의 관리들과 다른 모습으로 지역민과 접촉했다. 그는 지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 세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기층민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 권력에 기생하며 횡포를 일삼는 중의 처벌, 자살한 여인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고유는 차별성을 지닌 수령이었다. 이러한 행적이 화소가 되어 입말 이야기를 구성했고, 이야기는 증거물과 결합되어 사실성을 확보했다. 사람들은 고창녕 전설을 통해서 수령 고유의 이미지를 기억에 안착시켰다.

27) 정약용, 『흙흙신서』, 법제처, 1987, 1면; 김택 외, 「조선시대의 형법사상과 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34집, 한국행정사학회, 2014, 113-114면.

28) 강진욱,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38면.

3. 나열된 이야기와 만들어진 이름

화중은 고창녕 전설을 구술하면서 그의 어린 나이를 강조한다. 고창녕은 설화에서 12~15세의 소년 수령으로 등장한다. 어린 나이는 고창녕에게 하나의 결점이 된다. 고창녕이 수령으로서 온전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점으로 인식되는 어린 나이를 극복해야 한다. 아전들은 왜소한 외모와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행동을 보고 고창녕을 얕잡아 본다. 그러나 고창녕은 수숫대 비유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다. 고창녕 전설에서 아전과 수령의 대립은 조선시대 지방의 관료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상황만으로 고창녕 전설을 이해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화중은 왜 고창녕을 나이 어린 수령으로 등장시켰을까? 고창녕의 실제 인물인 고유가 창녕현감으로 부임할 때는 이미 소년기를 지난 36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고창녕이 나이 어린 수령으로 등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고유는 유년시절 총명한 인재로 주목 받았다. 그는 8세에 시황금인론(始皇金人論)이라는 글을 지어서 문재(文才)로써 주위를 놀라게 했고, 경서와 제자백가를 두루 공부하여 16세 때 향시에 합격한다. 고유는 성균관에서 영조(英祖)가 주재하는 시험에 장원했고, 시정(時政)의 물음에 정확한 답을 내와 주목을 받았다. 이때 나이가 21세였다. 그 다음 해에 정시(庭試)에 뽑혀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었다.²⁹⁾ 영조는 고유를 가리키며, “약관의 나이로 벼슬하여 문학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급제’라 할 만하다”³⁰⁾고 했다. 고유는 ‘약관의 급제자’를 자신의 수석어로 달고 다녔을 듯하다. 고유의 이러한 행적이 전설의 고창녕이 되면서 ‘나이 어린 수령’으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나이 어린 수령’ 고창녕이 지닌 문학적 의미를 고유의 행적만으로 설명하기엔 아직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사회·역사적 맥락과 화중의

29) 정종노, 앞의 글, 353-354면.

30) 정범조, 김남기 옮김, <묘갈명 병서>, 『추담선생문집』, 보문사, 1996(1985), 380면.

의지 지향을 이야기 분석에 덧대어야 한다. ‘나이 어린 수령’은 기층민의 현실적 의미 지향이 문학적으로 이야기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다. 화중은 고창녕 전설을 본격적으로 구술하기 전에 항상 서두에 ‘어린 나이’를 강조하거나 ‘아전과 수숫대’ 삽화를 언급한다. 이는 결점으로 인지되던 고창녕의 어린 나이가 이후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수령 고창녕이 해결해 가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주변부에서 발생하여 망각될 수 있었던 살인 사건부터 ‘무슨 저런 것까지 수령이 해결해야 하나?’ 의문을 갖게 하는 자질구레한 일까지 고창녕에게 주어진 문제는 다양하다. 현실의 수령이라면 이런 일들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기층민의 처지에서 삶의 영속성 문제가 달린 중요한 것이었다. 수령 고창녕은 현장으로 직접 가서 사건을 조사하고, 힘없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수령 고창녕의 모습은 ‘어린 나이’라는 인물의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년기는 육체적 자장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장으로, 자연적 삶에서 인위적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로 인식이 전환되는 시기이다.³¹⁾ 소년기의 경험은 하나의 코드가 되어서 이후 삶에서 세상을 독해하는 인식의 창이 된다. 이에 소년은 비코드화된 인식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문턱의 존재인 소년은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이 혼란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소년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혼란스러운 세계를 재편하고, 이해 가능한 경험들을 축적해 간다. 그래서 소년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는다. 나아가 세계의 문제는 소년에게 있어서 나의 문제가 되기에, 타인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공감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기성의 관념과 중심성의 시각은 주변의 문제를 올곧게 보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인식에 자리 잡은 중심성의 코드는 세상의 문제와 대면할 때, 이미

31) 주종연, 「민담의 장르적 특성」, 『어문학논총』 제19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0, 10면.

정해진 해결 공정을 통해서 답을 내온다. 현실의 관리는 기성의 관념과 중심성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이다. 기층민은 현실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해왔다. 그래서 기층민은 역사적 경험이 부여한 이러한 굴레를 이야기에서 만큼은 다른 모습으로 풀어보고 싶어 한다. 입말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기층민의 소망을 담아서 구성된다. 원혼형 설화인 <아랑전설>은 이러한 기층의 의식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가해자 남성-피해자 여성, 말을 할 수 없는 여성의 원혼 등의 문제는 기성의 관념과 중심성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새로 부임한 수령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해원 주체로 등장한 인물은 주변성을 지닌 관리이거나 그의 아내로 설정되는 것은 기층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³²⁾ 이런 맥락에서 고창녕의 어린 나이는 고유의 실제 행보와 맞닿으면서 현실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기층민의 처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화중의 바람이 반영된 하나의 문학 장치로 자리 잡게 된다.

‘나이 어린 수령’ 고창녕은 실존 인물인 고유와의 연관성 속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했다. 그런데 고창녕이 부기된 이야기들은 실존 인물 고유와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실존 인물 이야기는 입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실이라는 구심력과 허구라는 원심력이 상호 긴장하면서 구성된다. 그런데 사실과 허구가 형성하는 문학적 긴장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서 약화된다. 그 중 하나가 실존 인물과 이야기가 전승되는 지역의 연고성 문제이다. 실존 인물이 지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 이야기는 사실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여 사화(史話)나 전설(傳説)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 실존 인물과 지역의 연고성이 약화되면, 허구의 원심력이 작동하여 사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의 연고가 없거나 역사적 행적이 화중에게 강하게 인식되지 않은 인물은 막연히 전승되는 이야기에 인물의 이름만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³³⁾

32) 황인순, 「〈원님보다 지혜로운 조력자〉 이야기를 통해 본 판결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116-117면 참고.

화중은 고창녕을 실존 인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고씨 성을 지닌 인물이 ‘창녕군수’를 지냈다는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³⁴⁾ 화중은 고창녕의 실제 모델인 고유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실존 인물 고유가 창녕현감을 지낸 것 외에 인물 이야기가 전승되는 지역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노모는 우찌해서 왔입니까?” 묻거덩. “그런 기 아니라, 저는 오늘 새바아(새벽에), 집에 거 짐승을 키우는데, 닭홀 키와가, 닭홀 팔러 오늘 시장에 가아간께, 시장에 가간께, 어느 사람이 지가 팔아 준다 캐 놓고 안 팔아 줘서, 나중에 지기라(제 것이라) 쿠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 이 사람하고 둘이 왔십더.” “닭 팔러 가 그래 이 사람이 지 닭히라 카니, 팔아 준다 커다가(하다가) 이리저리 가아 땡기다 지 닭히라쿠니, 그래서 성주님께서 인자 하다 이걸 잘 알아 맞춘다 쿤께네 가져 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 네 이 바라. 저, 이 니 닭히냐?” “예, 지, 지 닭히올시다.” 이 닭 가아 간 놈이(놈이). “그래, 좀 밖에 나가라.” 그래 내보내 놓고 할매한테 물었다. “거 노부는 거 장에 팔로 올 때 뭘 먹이가(먹여) 왔느냐?” “그래 저는 삼을 삼을라꼬 대마를 갈고 대마씨가 남아서 그 씨를 먹이가 왔읍니다. 간구해서(가난해서) 참 판 거는 먹이도 안 하고 왔읍니다.” 이래. “그럼 됐다.” 그래 저 놈 또 불렀다. “네 이 놈, 닭 팔러 올 때 물 먹이가 왔느냐?” “예, 저는 쌀도 먹이고, 뉘 보리도 먹이고, 뉘 나락 먹이고, 여러 가지 먹이가 왔읍니다.” 이래. 그래 인자 이방을 불러서, “저 닭 잡아라.” 닭홀 잡아 보니까 안에 열씨(삼씨)가 소복하게 나온다 말이다. “네 놈이, 이래도 니 닭가? 그 닭값 배로 물리 줘라.”³⁵⁾

위의 이야기는 사기로 잃어버린 촌부(村婦)의 닭을 고창녕이 찾아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야기류에는 고창녕만 등장하지 않는다. 비슷한

33) 신동훈, 앞의 책, 178-179면.

34) 정상박, 앞의 책, 13면.

35) 「고창녕」, 『대계』 8-4, 259-260면.

이야기가 수령의 이름만 달리 하여 기록과 입말로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송나라 관리 부염(傅琰)이 산음령(山陰令)으로 있을 때, 두 농부가 한 마리 닭을 두고 다툰 사건을 판결한 내용이 『남사(南史)』에 전한다.³⁶⁾ 위의 이야기는 입말로 전하는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기>형으로, 원님설화·송사설화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각편 「고창녕, 유산 찾아 주다」³⁷⁾는 고상안(高尚顔, 1553~1623)의 『태촌집(泰村集)』에 실린 이야기로, 입말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수령 고창녕이 기입된 것으로 추측된다.³⁸⁾ 고창녕 전설은 송사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문헌의 기록과 입말로 전승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차용된 이야기들은 실존 인물이 부기되면 일화(逸話)로서 성격을, 무명의 인물로 대체되면 민담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민담은 '있을 만한 일'과 '쉽게 있을 만하지 않은 일'이 교직되어 문학적 효과를 드러낸다.³⁹⁾ 고창녕 전설은 기층에서 활발히 전승되는 민담을 원천으로 구성된다. 등장 인물들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수령 고창녕에게 판결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기층의 삶에서 항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야기의 현실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한다. 여기에 실존 인물로 인식되는 고창녕 이름이 기입되면서 화자와 청자 모두 사실적 층위에서 이야기를 수용하게 된다.

인물전설의 각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통합체적 구성으로 인물전설의 각편들이 시간적·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병렬적 구성으로 각편들이 단순 나열식으로 이야기군을 형성한다. 통합체적 구성은

36)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4』, 창비, 369~340면.

37) 선대가 후손들이 수복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절에 기부한다. 그러나 후손들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후손들은 절을 찾아가 선대가 기부한 재산을 돌려주길 청하지만, 거부당한다. 수령 고창녕은 선대가 후손드리 복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했는데,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대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다.(『대계』, 8-4, 37-39면.)

38) 윤승준, 앞의 논문, 142면.

39) 신동훈, 앞의 책, 206면.

실존 인물의 행적담에서 보여준 특이성을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출생담, 성장담, 죽음담 등을 각편으로 덧붙인다. 그래서 통합체적 구성의 인물전설은 한 인물의 생애를 조망할 수 있는 구비 전승의 전(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병렬적 구성은 각편 사이에 시간적·인과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물의 특이한 행적담은 유사성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묶일 수 있는 이야기들의 나열로 구성된다.⁴⁰⁾ 고창녕 전설은 출생담과 성장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행적담, 그것도 수령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송사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병렬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고창녕 설화의 병렬적 구성은 화중의 서술시각을 반영한다. 설화 구술자의 세계 인식에 대한 이념적·심리적 태도가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게 각종 방식으로 전이되어 어떤 의미 구조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추상할 때, 우리는 이를 서술시각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¹⁾ 서술시각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태도이다.⁴²⁾ 민담은 기층민이 일상에서 대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원망이 내재되어 있다. 화중은 이름 없는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희극적 결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상상적으로 유희한다. 반면 역사의 실존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경우, 화중의 의미 지향은 조금 달라진다. 화중은 실존 인물의 등장으로 현실적 층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기대로 대치된다. 즉 인물전설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의미 지향은 실존 인물에게 수렴되고, 수렴된 인물상과 비슷한 인물이 현실에 출현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 지점에서 화중의 서술시각은 문학적 층위의 유희를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향하게 된다. 민담이 지닌 허구적 상상은 실존 인물을 매개로 현실 지향성을 강화하게 된다.

고창녕 전설은 화중의 서술시각 변화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40) 오세정, 앞의 논문, 109면.

41) 이인경, 「구비 '송사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30면.

42) 이강욱, 앞의 논문, 77면.

고창녕은 실존 인물 고유에게서 시작됐다. 고유의 실제 행적이 입말의 이야기 구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중은 어느 순간부터 고유의 행적과 상사(相似)한 이야기들을 적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화중은 고유의 이름마저 버리고, ‘고창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바라는 인물을 조형하기에 이른다. 고유에서 고창녕으로 전환,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호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개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창조 행위이며,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은 환생이나 부활을 상징한다.⁴³⁾ 기호로서 이름 고유는 사실을 전제한 기록된 행적을 통해서 구성된다. 물론 현실적 개연성을 담보하는 허구의 이야기 등이 고유의 기호적 의미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한정적이다. 그러나 실존 인물 고유가 결착하고 있는 역사적 요소, 즉 계급 사회의 신분적 요소나 남성의 젠더적 요소 등은 기호적 의미가 확장되는 데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기층의 화중이 선택한 방법이 기호의 전이다. 기호의 전이란 유사한 경험 내용이 다양한 기표에 사상(mapping)됨으로써 유사한 ‘기호적 의미’가 새로운 기표를 거치면서 변형과 증식을 거듭하는 현상이다.⁴⁴⁾

실존 인물 고유는 실제 행적에서 기존의 관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차별화된 모습은 기층에게는 특별한 물리적 경험이 되면서, 입말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했다. 입말로 구성된 이야기는 기층이 경험한 고유의 특이성을 의미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고유의 이름 기호에 의미를 사상하는 과정이었다. 이야기 전승은 하나의 기호적 경험이 된다. 기호적 경험은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그 기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상된 경험 내용만을 재경험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호적 경험을 통해 물리적 경험을 확장하는 동시에 물리적 경험을 넘어선다. 이 과정에서 경험의 재경향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기호의 전이다.⁴⁵⁾

고유가 고창녕으로 바뀐 것은 바로 기호의 전이라 할 수 있다. 화중은 현실적

43) 유리 M, 로트만, 김수환 옮김, 『기호계』, 문학과지성사, 2008, 150면.

44) 노양진, 「기호의 전이」, 『철학연구』 제149집, 대한철학회, 2019, 115면.

45) 노양진, 위의 논문, 114면.

맥락에서 구성된 긍정적 관리로서 고유의 기호에, 민담 등 기층에서 과거부터 축적한 긍정적 관리에 대한 기호적 경험의 결합하고자 한다. 하지만 입말 전승을 통해서 적층한 긍정적 관리의 모습을 실존 인물 고유의 이름 기호에 사상하기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화중은 사실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기층의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창녕’이었다. 고유의 이름 기호에서 출발하여 기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층이 누적한 기호적 경험과 바라는 의미를 결합시켜서 구성된 기호가 ‘고창녕’이다. 하지만 기층의 화중이 구성하는 기호적 의미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창녕 고창영이가 명관은 명관이더라. 명관은 명관이라도 그 중의 자식이든 구나.” 카는 기라. 명관은 이칸끼네, 그래 저 사람들 저놈들 숨어가 있던 놈들이 잡아가지고 옥에 갇았는 기라. 갇아 놓고 그래 말 문답을 시키는 기라. 그래서, “사실 이리하고 니가 중의 자식이든구나. 중의 자식인데 그 그래서 중의 자식이라 겠다.” 그래 인자 저검마한테(엄마한테) 창녕 고창영이가 갔다 카는 말이 있어. 그래 칼로 이래 갖다 놓고 끌어 절에 놓고 저저 엄마한테 바래(바로) 안 갈치주마 죽는다고 카인께네 그 창녕 고창녕 저검마가, “내 몇 살 묵었을 때 살림을 살고 어른들은 들에 가고 중님이 하나 들와 가지고 달라 드는거 그놈을 강탈할라고 달라드는 놈을 그 놈을 내주어(나중에) 결국 죽여서 대밭 안에 저 갖다 열어 뿜다. 열어 놓고 그런 일이 있다.” 카는 기라. 그래서 인자 그 사람 서이가 나오고-창녕 고창영이가 명관이라도 중의 자식이라-카는 말이 있어 그계.⁴⁶⁾

위의 이야기는 고창녕 전설에서 잘 나타나지 않은 출생담이다. 화중은 이야기를 통해서 ‘고창녕’의 기호에 이인성과 신화성을 결합시키려 한다.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겉으로 평범하지만 각자 나름의 이인성을 지닌 세 사람(짐승

46) 「어린 명관 고창영」, 『대계』 7-14, 142-146면.

의 소리를 듣는 사람, 냄새를 잘 맡는 사람, 지리를 잘 보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살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세 사람은 살인자로 오해를 받게 되면서 고창녕과 대면한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인성으로 인해서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살인자의 누명을 벗게 된다. 세 사람은 길을 떠나면서 고창녕이 명관임을 인정하고, 사족으로 고창녕의 출생담을 이야기한다. 이인은 자신들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예사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며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⁴⁷⁾ 그런 측면에서 세 사람은 이인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고창녕은 이인들의 인정을 이끌어내면서 명관으로서 이인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고창녕의 이인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화중의 과욕이 지나쳐서 다른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출생담까지 덧붙이게 된다.

출생담은 종교성의 지표를 지닌 중과 처녀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둘의 결합은 신화적 표지로 독해된다. 한국의 신화적 인물은 신성의 표지를 지닌 부계가 중심적 위치를, 모계는 보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계는 여성과 결합한 후에 사라진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 천지왕본풀이나 한국의 서사무가 〈당금애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녀의 결합 양상은 역사 시대에 들어서면 변한다. 신계에서 찾을 수 없는 부계 혈통이 이물교혼이나 신이성을 지닌 무명의 부계로 대체된다. 이들의 결합으로 출생한 인물은 신화적 편린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고창녕이라는 기호에 신화성을 기입하려고 시도되지만,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다. 중과 처녀의 만남은 부정적 표지를 지닌 겁탈로 서술되고, 신성의 표지를 지닌 부계는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아 실제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화중은 고창녕의 기호에 명관의 이인성을 담아내고, 중을 등장 시켜서 신화성까지 결착시키려 했지만 실패한다. 만약 출생담이 기층의 호응을 얻었다면, 유사한 모티프를 지닌 출생담이 광범위하게 생성·전승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47)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겸암과 서예의 엇갈린 삶과 민중의식」, 『퇴계학』 제5(1)집, 안동대학교, 1993, 49면.

실존 인물 고유가 조선 후기의 사람이며 사대부 관리라는 조건이 고창녕의 기호에 이인성과 신화성을 결합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나아가 화중과 기층은 고창녕의 기호가 이인성과 신화성으로 확장되어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고창녕 이야기의 확장은 또 다른 지점에서 한계를 노출한다. 「고창녕의 소 찾아주기」⁴⁸⁾는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균열에 대한 사회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정승을 지낸 양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백정에게 소를 빌리러 가면서 시작된다. 백정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양반을 맞이했고, 그가 요구한 소도 빌려준다. 양반은 소를 돌려주면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까봐 아들을 대신 보낸다. 아들은 백정에게 알리지 않고, 소를 그의 집 앞에 놓고 돌아온다. 소는 사라져 버리고, 백정은 소를 돌려받기 위해서 고창녕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고창녕은 다른 이야기와 달리 양반에 이로운 판결을 내리고, 백정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주문한다. 고창녕 또한 사대부 출신의 양반이다. 이야기는 수령 고창녕이 계급 갈등이 예각화된 문제 앞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층과 친연 관계를 지닌 수령 고창녕도 궁극적으로 기존의 질서 체계를 수호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적 인식은 각편 「고창녕의 명판결(2)」⁴⁹⁾, 『고창녕 원님(갓 찾아준 이야기)」⁵⁰⁾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반대로, 고창녕 기호가 기층의 친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화중은 고창녕의 신분을 머슴으로 격하시키면서 과도한 허구를 가미한 민담을 구성한다. 두 편의 이야기가 채록되었는데⁵¹⁾, 공교롭게

48) 「고창녕의 소 찾아주기」, 『대계』 8-7, 160-163면.

49) 상놈이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양반을 고창녕에게 고발한다. 그러나 고창녕은 양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대계』 7-17, 181-182면.)

50) 양반이 길을 지나다가 바람에 갓을 잃어버린다. 양반은 수령 고창녕을 찾아가 잃어버린 갓의 비용을 보상하라 요구한다. 이에 고창녕은 바람을 빌었던 어장 사람들을 불러서 갓의 비용을 양반에게 지불하게 했다. 『대계』 8-1, 56-57면.)

51) 「머슴살이하다 부사가 된 고유」, 『대계』 7-9, 729~736면; 「고유와 좌수 딸」, 『대계』

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창녕의 기호가 아닌 실존 인물 고유로 기표된다. 이야기의 고유는 머슴 신분으로 주인집 딸을 사모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녀와 혼인한다. 고유는 아내의 도움으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다. 두 편의 이야기는 화중이 실존 인물 고유가 보인 기층의 친연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상상력이 작동하면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구성 공정은 다른 인물전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는 왕족 출신의 관료이다. 그런데 화중은 이서구가 보인 기층의 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생담을 구성하여 계급성에 변화를 준다. 화중은 이서구가 전생에 승려·평민의 아들·시아머니의 폭압에 시달려 죽은 아녀자였고, 그런 아픔을 잊지 않고 현생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⁵²⁾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갖는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면서 전승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두 편의 고유 이야기는 이해될 수 있다.

고창녕의 기호는 여러 방향으로 의미가 분기될 수 있다. 화중은 실존 인물 고유에서 기호의 '고창녕'으로 전환하고, 기호적 의미를 재정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야기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존 인물 고유가 지닌 한계성과 기층의 다양한 욕망이 착종되면서 의미의 재정향을 시도한 기호 고창녕은 일관성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걸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중은 실존 인물 고유가 지닌 긍정적 의미를 보존하면서 고창녕의 기호적 경험을 축적해 갔다. 그리고 나름 일관성을 확보한 '수령 고창녕' 기호를 조형했다. 기층의 화중은 '수령 고창령'의 기호에 자신들의 정치적 바람을 담아내고 있었다.

6-3, 638-644면.

52) 한정훈, 『인물전설의 시대적 비극성 연구』, 『실천민속연구』 제25집, 실천민속학회, 2015, 271-272면.

4. 수령 고창녕과 정치 윤리의 한계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품고 있다. 문자의 기록은 모든 사건을 적시하지 못한다. 문자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망각하고자 하는 일들,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된 기억들을 기록에서 배제해 버린다. 하지만 기층은 자신만의 기록 방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입말이다. 기층은 기록에서 배제되었지만, 자신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입말에 새기어 전승했다.⁵³⁾ 입말의 이야기가 전승 과정에서 굴절·왜곡되어 실제적 사건을 올곧이 재현할 수 없지만, 이는 역사적 진실을 내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송강 정철의 전설은 기록의 배면에 위치한 기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예가 된다.

송강 정철은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다. 선조(宣祖)는 격한 당쟁 상황에서 소외된 송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한다. 송강은 왕의 배려에 보답하고자 관찰사직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는 부임하자 각 읍 수령들에게 복무 수칙을 전달하고⁵⁴⁾, 민간의 풍속을 교정하고자 삼강오륜을 토대로 행동 절제의 규범을 작성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한다.⁵⁵⁾ 이러한 송강의 노력이 기록으로 구체화된 것이 <훈민가> 16수였다. 후대의 사람들은 기록된 행적을 근거로 송강을 훌륭한 목민관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서 입말로 전승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송강이 기층에게 선정을 베푼 목민관이었는가 의문이 든다. 입말 이야기는 사적 원한으로 처참한 복수를 감행하는 인물, 욕심 많은 인물, 지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로 송강을 형상화한다. 심지어 화중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송강의 비참한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53) 신동훈, 「구술담화의 서사적 지향과 그 역사적 가치」, 『통일인문학』 제5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49면.

54) <雜著 諭邑宰文>, 『송강별집』 권1.

55) 권용주,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4면.

송강은 왜 입말 이야기에서 부정적 인물상으로 그려졌을까?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덧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앙 관료와 재지사족 사이의 갈등, 봉당 정치 상황 등이 부정적 인물상을 배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⁵⁶⁾ 그러나 입말 이야기는 상층 담론이 아닌 기층 담론이다. 상층의 정치 담론이 기층의 이야기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송강은 기층민의 입장에서 사려 깊게 행동한 목민관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충직한 신하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 그래서 송강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엄격했고, 기층민은 그러한 송강의 모습에 크게 놀라 많이 동요하기도 했다.⁵⁷⁾ 대쪽같은 성품으로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관리로서 응당 지녀야 할 모습이지만, 그러한 송강의 모습이 기층에게는 조금 과하게 비춰졌던 것이다. 입말 이야기는 관리로서 송강과 기층의 인식이 충돌한 단면을 담아내고 있다.

도덕과 윤리는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도덕(morale)은 보편성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구속 효과로 특징지어지는 규범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윤리(éthique)는 주체가 하나의 완성된 목표에 대한 가치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⁵⁸⁾ 도덕과 윤리가 공히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시간의 주름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하나의 진리로서 인식되면서 강제적 이식성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윤리는 실제의 삶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과 주체의 반성적 사유를 통해서 구성됨을 전제한다. 목민관 송강이 기록과 입말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것은 도덕과 윤리, 즉 상층의 이념을 도덕적 가치로 이식하려는 관리의 모습과 기층의 윤리가 갈등하면서 빚어진 결과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요하는 것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기층을 상대로 어떠한 정치를 행해야 하는가이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역할은 조선 전기와 후기가 조금 다르다. 조선

56) 한정훈, 「정철 전설에 나타난 사건의 계열화와 인물상의 의미 분화」, 『국어국문학』 제176집, 국어국문학회, 2016, 470-471면.

57) <年譜 上> 경진(庚辰), 『송강별집』 권2.

58) 폴 리코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230면.

전기는 성리학적 이념으로 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시기였다. 조선 전기의 관리는 왕조의 전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업무가 중시되었다.⁵⁹⁾ 지방 관리는 국가 이념을 전파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국가의 체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전란 이후의 조선 후기는 견고한 계급 체계에 균열이 발생했고 경제적 생산 양식에 변화가 생겼다. 지방 관리는 지배 권력과 기층을 갈등 없이 연결해야 하는 매개자가 되어야 했다.⁶⁰⁾ 관찰사 송강이 조선 전기 지방 관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조선 후기의 관리는 상층과 기층의 담론을 매개하는 중간자적 역할이 중시되었다. 특히 수령은 관료 체계의 가장 밑단에서 기층민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조선 후기 수령의 역할에 큰 변화가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는 기층민의 의식 성장이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은 조선시대 계급 체계를 대변한다. 사(士)는 지배 계층으로서 말과 글을 소유하면서 정치를 행하는 주체이다. 이에 반해 농공상(農工商)은 조선 사회의 기층 집단을 구성하면서, 말과 글 대신 기능적 역할만이 의무로써 부여된다. 정치는 말과 글을 통해서 구성된다. 말과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지 못하는 주체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다.⁶¹⁾ 조선 전기의 견고한 계급사회는 기층민에게 자기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은 큰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을 노출시켰고, 더 이상 모순을 은폐하는 것으로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계급 사회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층민은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기 시작했고, 지배 계층은 더 이상 기층의 발화된 이야기를 억압할 수 없었다. 지배 계층은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하는 기층민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발화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의 수령은 지배 권력과 기층이 맞닿고 있는 경계면에 위치해 있었다.

59) 이상엽, 앞의 논문, 170면.

60) 홍해뜸, 「조선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와 관민소통책」, 『한국사상사학』 제49집, 한국사상사학회, 2015, 128면.

61) 김에령, 「다른 목소리 듣기」, 『한국여성철학』 제17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42면.

그 어떤 버버리(병어리)가 넘으집을 이래 살았는데, 에 삼 년을 그 집에 살아 가지고 새경을 돌려(달라고) 카이 새경을 준다고 안 주는 기라. 삼 년을 그 집에 부잣집에 넘으집을 살았는데. 새경을 돌려, 돌려 카이 안 주이까(주니까), 자 말로 할 줄 알아 가지고 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알 수가 있나. 뭐 도저히 우얌(어쩔) 도리가 없는 기라. 그 넘(놈) 줘다 카지. (...) 그래 인자 그 밑에 부하를 시켜서 [청중 : 따라보냈다.] 손가락질을 하이까 일어선다 말이다. 그래 가이까 즈그 주인을 보고 손가락질을 요래 하거등. 그래 '수기소지 하야 소지자를 착래하라' 쟈거등. 손가락질한 거를 잡아오라 쟈거등. 그래 그 사람을 잡아갔다 말이다. 그래 다스려 대니까 마 바른 말을 활활 다 하고 새경 전부 다 주고 다 하더란다. 그 그래 명판이라.⁶²⁾

위의 이야기는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계급에 부여된 기능적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화폐 자본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병어리가 노동력을 매개로 부자와 사적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부자는 상대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결국 병어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령 고창녕을 찾는다. 수령 고창녕은 병어리의 모습을 살핀 후에 그가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령 고창녕은 말 대신 글로 소통하면서 병어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야기에서 병어리의 상징이 심상치 았을 뿐더러, 수령 고창녕의 자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조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상에서 발생한 기층민의 다양한 사건은 법적 분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기층민은 부당한 억압과 갈등에 대해서 과거처럼 인내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기층민은 갈등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자로 수령을 찾았다. 수령은 향촌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수령은 왕의 임무를 분담하여 지방의 통치를 전담하는 군현 내의 유일한 관원으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수령은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자 임기 역시 유동적이어

62) 「병어리의 새경을 받아 준 고창녕」, 『대계』 8-7, 400-401면.

서 권한에 비해 현실적 지배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⁶³⁾ 지방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는 재지사족과 아전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향촌의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권과 얽혀 있었다. 수령은 이들과 비교해서 지역 사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수령이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갈등을 빚는다면 큰 고초를 겪어야 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위치가 수령에게 나름 이점으로 작용한다. 수령은 지역의 이권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힘없는 기층민이 지역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나마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수령이었다.

18세기에 간행된 목민서는 수령이 기층민과 적극적으로 접촉할 것을 권장한다. 수령이 관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전들에 둘러싸여 지역 사정에 어두울 수 있어서 행정·사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서 민간을 염탐하라고까지 권유한다.⁶⁵⁾ 또한 수령은 항상 관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기층민이 소(訴)를 제기할 때는 아전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야 한다고 권장한다.⁶⁶⁾ 기층민의 소장이 아전들을 경유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사건은 수령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음을 경계했다.⁶⁷⁾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장하는 기층민의 의식에 관이 부응하고자 하는 나름 노력이었다. 또한 기층민이 공적 장소에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기층민은 그간 공적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억울함이

63) 홍해뜸, 앞의 논문, 125면.

64) 백민정, 「다산의 『목민심서』에 비친 조선 시대 지방 정치의 자화상」, 『지식의 지평』 제24집, 대우재단, 2018, 5면.

65)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이전육조(吏典六條), 제5조 찰물(察物)〉, 『역주 목민심서2』, 창비, 2018, 214-216면.

66)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부임육조(赴任六條), 제6조 이사(莅事)〉, 『역주 목민심서1』, 창비, 2018, 111면.

67) 홍해뜸, 앞의 논문, 142-143면.

있어도 공적 장소에만 가면 병어리가 되었다. 이런 현상을 일명 ‘병어리과(啞科)’라 한다. 촌백성이 억울함이 있어서 관아에 찾아오면 권세 있는 아전들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우물쭈물 해질 수밖에 없고, 글을 알지 못해서 남에게 대신 소장을 부탁하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 있고, 그나마 찾아온 관은 여기 저기 매질을 해대니 혼이 나가서 기층민은 결국 병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⁶⁸⁾ 만약 수령이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잘못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령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병을 살피듯이 해야 하며 위엄과 억압으로 기층민을 대해서는 안 된다. 수령은 소를 제기하러 오는 기층민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문 밖에 북을 걸어두어서라도 기층민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병어리는 공적 공간 관아와 공적 주체 수령을 대면하면서 기층민이 겪어야 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령 고창녕이 병어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묻기-보기’였다. 수령 고창녕은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에 게 글로써 ‘묻기’를 행했고, 그의 행위를 ‘보기’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수령 고창녕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말하기’를 배제한다. 말하기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의미를 교환하는 행위이며, 교환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치 행위가 된다. 하지만 공적 주체 수령과 기층민은 말하기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정치 행위로서 말의 교환은 수령 고창녕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민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 수령이라는 공적 지위 자체가 힘의 불균형을 지시하기에, 수령의 말은 기층민에게 자칫 권력의 연표가 되어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게 된다. 수령 고창녕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기층민 앞에서 최대한 자신의 ‘말하기’를 자제한다. 그리고 ‘묻기’를 통해서 병어리의 행위를 유도하고, ‘보기’를 통해서 병어리가 발신한 기호를 독해한다. 하지만 기층민이 언제까지 병어리일 수 없다. 그들도 말하기를

68)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형전육조(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 『역주 목민심서4』, 창비, 2018, 336-337면.

시작한다. 말하기와 함께 수령에게 요구되는 것이 ‘듣기’이다. ‘묻기-보기’의 행위소는 ‘듣기’로 전환되면서 하나의 정치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그 열 다섯 목은 사람이 원 노릇을 하는데, 참말로 명관이라. 잘, 빛이라도 판단을 잘 해 주거든. 어느 옹구장사 하는 사람이 아주 살림이 귀찮고(구차하고), 옹구장사를 해서 목어. (...) 원 앞에, 그레 동헌 마당에 가서 떡 엮디리 있는께, 원이 하기로, “저기 있는 백성은 네 무슨 소원으로 왔고?” 이리 묻거든. 그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시방 옹구장사를 하는데, 이, 하다가 옹구를 한 집 해 짊어지고 저 산중으로 올라가다가 대서로(고단하여서) 지계를 받쳐 놓고 쉬는데, 가악 중에 돌풍이 일어나 가이고 옹구짐을 전부 다 깨버려 논게나 천상 묵고 살 길이 없어서 게, 거, 알아보러 왔입니다.” (...) “네 이리 오너라.” 저 저 가까운 데다 갖다 놓고 배 사람들을 그날 전부 불러 들이는 기라. 인자 불러 들이 가이고, 네 아무 것이 그날 요새 시간을 치몬 시간말이제, 그때는 아무 시간도 아닐 게고 시간은 모리지마는 아무때 네가 바람을 글렀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몬, 네가 돈이 얼마로 물어라. 돈을 물리는 데, 착착 돈을 물리는데, 이놈의 바람은 부는데 부라고 추윈도 안 했지마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오고 가고 잘 했인께나 돈을 내라 쿠는 기라. 그레 돈을 내는데 착착 돈을 받아들이는 데 저녁 때가 된께 돈이 마 그득하게 되거든. 그레 말키다 보내 놓고는 옹구장사를 불러 가이고, “네 이 돈을 가져 가이라. 가 가모(가지고 가면) 아매(아무리) 네 집이 귀찮지마는 이만하몬 안 묵고 살겠나?” 그레 그 돈을 받아 가이고 옹구장사가 와서 잘 살터랍니다.⁶⁹⁾

한 남자가 구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옹기 장사에 나선다.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을 만나 옹기를 모두 잃게 된다. 옹기장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옹기를 깨뜨린 책임을 누구한테도 지울 수 없다. 옹기장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령 고창녕을 찾는다. 수령 고창녕은 관아에 엮드려 있는 옹기장수를

69) 「고창녕 원님(1)」, 『대계』 8-2, 25-27면.

발견하고,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묻는다. 수령 고창녕의 ‘묻기’가 시작된다. 옹기장수는 자신의 사정을 말로써 구성한다. <병어리의 새경을 받아준 이야기>의 ‘묻기-보기’가 옹기장수 이야기에서는 ‘묻기-듣기’로 전환된다.

옹기장수가 수령 고창녕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명관’이기 때문이다. 수령 고창녕이 ‘명관’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기층민의 고충을 귀 담아 들어주고, 나름의 해결책을 궁구하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옹기장수도 명확한 가해자가 없는 자신의 사건을 수령 고창녕이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옹기장수는 범인을 찾아주라는 목적으로 수령 고창녕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재기할 수 없는 막막한 자신의 처지를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가 옹기장수에게는 필요했다. 하지만 옹기장수의 막연한 기대와 달리 수령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기층민을 구제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

수령은 고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행정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는 법률가이자,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복지가여야 한다.⁷⁰⁾ 수령이 고을에서 가장 세심히 돌봐야 하는 사람은 소외된 자들이다. 일명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 불리는 자들로 홀아비, 과부, 고아, 늙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환과고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체성의 체계 속에서 썸해지지 않는 자들로서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령은 이들을 경제적으로만 부조하지 않는다. 이들의 소외가 영속되지 않게 공동체에 편입되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

옹기장수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살길을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수령 고창녕은 옹기장수를 대면하면서 ‘묻기’부터 시작한다. 수령 고창녕의 ‘묻기’는 옹기장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끔 유도한다. 기층민이 본래적으로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말이 있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이 구성되지 않게 하는 다양한 권력 장치들이

70) 이인경, 앞의 논문, 341-342면.

있었다.⁷¹⁾ ‘묻기’는 말을 가로 막는 상황들을 무화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말과 목소리를 구분한다. 인간의 말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또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 공적 공간에서 그러한 언어로 말할 수 없을 때, 그 말은 소리에 머문다.⁷²⁾ 그러나 수령 고창녕은 ‘묻기’를 통해서 기층민의 발화를 유도했고, ‘듣기’를 통해서 발화된 것이 소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수령 고창녕이 옹기장수에게 보인 모습은 ‘듣기의 윤리’였다. ‘듣기의 윤리’는 언어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위에서 구성된다. 스토리는 경험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기의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요청되는 것이 ‘날카로운 귀’이다.⁷³⁾ 듣기의 윤리는 단순히 듣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말이 구성하는 경험의 불투명성, 말하기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억압, 구성된 이야기의 이면에 배치된 의미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궁구하고, 말하기 주체와 의미를 교환할 때 비로소 ‘듣기’를 넘어서 행위적 실천으로서 윤리를 구성하게 된다. 수령 고창녕이 옹기장수의 말을 듣고 대안을 생각하는 일련의 모습이 바로 ‘듣기의 윤리’를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수령 고창녕이 옹기장수를 불쌍히 생각해서 자신의 돈으로 물건 값을 변상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해법은 옹기장수가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수령 고창녕이 찾아낸 해법의 단서는 옹기를 깨뜨린 ‘바람’이었다. 고창녕은 ‘바람’으로 옹기장수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 집단을 찾고, 그 결과 뱃사람을 발견한다. 뱃사람은 바람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다. 뱃사람과 옹기장수는 바람을 경계로 다른 처지에 위치해 있다. 수령 고창녕은 다름의 지점에서 둘을 연결시킨다. 뱃사람은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과 물건을 옮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 만약 옮길 수 있는 사람과 물건이 없다면, 바람은 뱃사람에게도 무용지물이다. 거기에서 수령 고창녕은 옹기장수의 자리

71)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75면.

72) 김에령, 앞의 논문, 40-41면.

73) 김에령, 위의 논문, 54-55면.

를 발견한다. 옹기장수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 함께 현재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 영향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옹기장수의 빈자리는 뱃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뱃사람이 받은 영향은 결국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수령 고창녕이 뱃사람과 옹기장수를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에는 공동체성이 있다. 수령 고창녕은 뱃사람에게 강제로 바람값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말하기에 내재한 권력성을 나름 이용하지만 뱃사람과 대화에서도 ‘묻기-듣기’를 행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해 간다. 구성된 의미를 수용한 뱃사람은 자신의 이윤 중 일부를 바람값으로 지불한다. 수령 고창녕은 바람값을 모아서 옹기장수에게 전달한다. 뱃사람이 지불한 바람값은 일종의 증여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동체의 증여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교환 행위가 아닌, 상징적 관계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상징적 관계 자본은 개인이 공동체에서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개인들의 순환적 증여를 추동하게 된다. 사람들은 반복적이고 순환적 증여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말하기가 정치 행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체의 드러남에 있다. 주체가 타자 앞에서 현전하는 것, 현전을 통해서 주체들이 자기 자리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정치 행위라 할 수 있다. 수령 고창녕이 증여를 통해서 뱃사람과 옹기장수를 연결시키는 것은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에게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주체는 현전함으로써 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일부 연구는 고창녕 전설의 〈옹기값 물어주기〉와 〈노총각 장가보내기〉를 시비판단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피해자 구제만 주력한 현우적 판결이라면서⁷⁴⁾, 실제 상황과 거리가 먼 가공적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유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분석한다.⁷⁵⁾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원고-피고를 상정한 실제의 송사(訟事)

74) 정재민, 「재판설화의 양면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3, 76면.

75) 이현홍, 「한국 송사설화 연구」, 『국어국문학』 제34(1)집,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

상황을 염두에 둔 데서 발생한 오류이며, 과거의 사회 현상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옹기값 물어지기>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층민의 삶을 살피고 구제해야 하는 수령의 당위적 의무를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송사의 성립과 해결 과정이 아니라, 수령 고창녕이 기층의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해 가는가에 있다. <노총각 장가보내기>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총각 장가보내기>는 가난으로 혼기를 놓친 남자들이 명관이라 소문난 고창녕을 찾아가 자신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청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현대의 화중은 결혼 문제 때문에 수령을 찾아가는 상황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한다. 현대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토대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의례로서 지극히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결혼은 사적인 의례 행위가 아니었다. 결혼은 좁은 의미에서 집안과 집안을 연결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었고, 넓은 의미에서 지역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간이었다. 그래서 기층의 혼인 문제는 왕의 중요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조(正祖)는 사족과 양민 중에 혼기를 놓친 남녀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 관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하고, 혼수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라고 했다.⁷⁶⁾ 『경국대전』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약용도 혼례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일로써, 왕의 대리자인 수령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를 골라서 매년 2월 성혼케 하도록 했다.⁷⁷⁾

<옹기값 물어주기>, <노총각 장가보내기>는 단순 유희적 목적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기층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있음직한 일들을 입말 이야기로 재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중은 왜 실제로 있었던 일들, 있음직한

학과, 1997, 29면.

76)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애민육조(愛民六條), 제3조 진궁(振窮)>, 『역주 목민심서2』, 창비, 2018, 56-57면.

77)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애민육조(愛民六條), 제3조 진궁(振窮)>, 『역주 목민심서2』, 창비, 2018, 58면.

일들에 수령 고창녕의 기호를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구성했을까? 수령 고창녕의 기호는 공적 주체,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 기층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은 수령 고창녕의 기호가 결합되면서 공적 사건의 성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기층의 말하기는 공적 주체의 듣기와 공명하면서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된다. 화중은 고창녕 전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말로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삶이 단순히 소리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고창녕 전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령 고창녕을 통한 이야기 구성은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기층이 말할 수 있는 정치 주체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는 기층민 스스로가 아닌 수령 고창녕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의식이 과도하게 투여되어 수령 고창녕의 기호적 의미가 잠시 일탈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히며 확장되지 못했다. 결국 기층민들은 수령 고창녕의 기호에 담아낼 수 있는 의미의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기층민은 한계의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실제적 행위로 옮겨가게 된다. 영·정조 이후 '민란의 시대'라 불리는 기층의 봉기가, 명관(원님)설화의 실존 인물들 대부분이 영·정조 이전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이 수령 고창녕 이야기가 품고 있는 전설의 비극성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고창녕 전설은 고유라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구성된 입말 이야기이다. 고유는 창녕현감으로 부임하여 다른 관리와 차별성을 보이면서 기층민과 친밀하게 소통했다. 기층민은 고유가 보인 특이성의 행적을 입말 이야기로 구성하면서 의미화 했다. 고유는 긍정적 수령의 모습을 의미화한 기호였다. 하지만 고유는 입말 이야기가 전승되는 지역과 강한 연고성을 지니지 못했다. 화중은

어느 순간 실존 인물 고유보다는 그가 지닌 긍정적 수령상에 의미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화중은 고유를 고창녕으로 바꿔 붙였고, 기표 고창녕에 다양한 이야기를 덧대면서 기호적 의미를 구성했다. 고창녕은 실존 인물 고유와 점점 멀어졌다.

기층은 수령 고창녕의 기호에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 윤리를 담아냈다. 수령 고창녕은 사람들을 대할 때면 ‘묻기-보기-듣기’를 행했다. 기층은 수령 고창녕의 ‘묻기-보기-듣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말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기층은 공적 말하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치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령 고창녕의 기호는 본원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수령 고창녕은 봉건 사회의 계급성, 남성의 젠더성 등 중심성의 관념을 내재하고 있다. 기층은 수령 고창녕 지닌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녕 전설은 기층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소리가 아닌 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정치적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발아가 조선 후기 현실 정치의 개혁적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 주제어: 고유(高裕), 고창녕, 전설, 기층, 공동체, 입말 이야기, 실존 인물, 정치, 명관(원님)설화, 말하기, 듣기의 윤리

참고문헌

1. 자료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학년도)구비문학 현지조사 보고서:경상남도 창녕군』,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 조희웅, 『이야기 망태기1』, 글누림, 2011.
-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상·하』, 창녕군지편찬위원회, 2003.
-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창녕군지편찬위원회, 1984.
- 『한국구비문학대계』

2. 저서

- 고유, 김남기 역, 『추담선생문집』, 보문사, 1996(1895).
-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 유리 M. 로트만, 김수환 옮김, 『기호계』, 문학과지성사, 2008.
-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1-7』, 창비, 2018.
- _____, 『흙흙신서』, 법제처, 1987.
- 폴 리콕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3. 논문

-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37-39면.
- 권복순, 「고창녕 이야기 연구」, 한글학회 진주지회 제14차 학술발표회, 2001.
- 권용주,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96면.
- 김무진, 「조선후기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 『학림』 제36집, 연세사학연구회, 2015, 125-179면.
- 김선미, 「고창녕 설화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43면.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제17집, 한국여성철학회, 2012, 35-60면.
- 김택 외, 「조선시대의 형법사상과 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34집, 한국행정사학회, 2014, 109-136면.
- 노양진, 「기호의 전이」, 『철학연구』 제149집, 대한철학회, 2019, 113-131면.
- 문광균, 「17~1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삼조창(三漕倉)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제8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61-298면.
- 백민정, 「다산의 『목민심서』에 비친 조선 시대 지방 정치의 자화상」, 『지식의 지평』 제24집, 대우재단, 2018, 1-14면.
- 신동훈, 「구술담화의 서사적 지향과 그 역사적 가치」, 『통일인문학』 제5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37-62면.
-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93-122면.
- 윤승준, 「구전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지평 모색-고창녕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135-168면.
-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의 유형과 그 서술원리」, 『한국학보』 제26(2)집, 일지사, 2000, 76-107면.
- 이상엽, 「조선 후기 지방인사행정체계와 수령의 위상」, 『동방학』 제8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2, 165-201면.
- 이인경, 「구비 '송사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335-390면.
- 이현홍, 「한국 송사설화 연구」, 『국어국문학』 제34(1)집,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5-40면.
-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겸암과 서애의 엇갈린 삶과 민중의식」, 『퇴계학』 제5(1)집, 안동대학교, 1993, 41-83면.
- 장민석, 「고창녕 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91면.
- 정상박, 「고창녕 전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7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67-90면.

- 정재민, 「재판설화의 양면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118면.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5-96면.
- 주종연, 「민담의 장르적 특성」, 『어문학논총』 제19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0, 1-23면.
- 한정훈, 「인물전설의 시대적 비극성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제25집, 실천민속학회, 2015, 247-288면.
- _____, 「정철 전설에 나타난 사건의 계열화와 인물상의 의미 분화」, 『국어국문학』 제176집, 국어국문학회, 2016, 447-484면.
- 홍혜뜸, 「조선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와 관민소통책-18세기 목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49집, 한국사상사학회, 2015, 123-159면.
- 황인순, 「〈원님보다 지혜로운 조력자〉 이야기를 통해 본 판결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95-120면.

【Abstract】

Composition of Ko-Changnyeong Legend and Political Ethics of Folklore Community

Han, Jeo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 Yu (高裕), a real person in the late Joseon period, became a Ko-Changnyeong that was composed of colloquial language stories, and to find out the meaning. Ko Yu came to Changnyeong for an official post of Hyeongam and communicated intimately with the folklore community, distinguishing himself from other officials. The folklore community symbolized the behavior of Ko Yu's singularity by composing a colloquial language story. Ko Yu was a symbol of signifying the appearance of a positive local governor. At some point, Hwa-jung began to focus on the image of his positive local governor rather than the real person Ko Yu. Hwa-jung changed Ko Yu to Ko-Changnyeong and added symbolic meaning to Gi-pyo Ko-Changnyeong by adding various stories. When local governor Ko-Changnyeong treated people, he performed 'asking-seeing-hearing'. The folklore began to organize the life of the community into stories through the 'asking-seeing-hearing' of local governor Ko-Changnyeong. Ko-Changnyeong, as a local governor, connected the life of individualized folklore with the life of a community, through which he constituted the political ethics of the folklore community. However, the symbol of local governor Ko-Changnyeong originally had certain limitations. The folklore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ocal governor Ko-Changnyeong. Nevertheless, the Ko-Changnyeong legend shows that folklore stories can be words rather than sounds, and even more likely to be political subjects.

【Key words】 : Ko Yu (高裕), Ko-Changnyeong, legend, folklore, community, colloquial language stories, real person, politics, Myeonggwang (Wonnim) tale, ethics of speaking and hearing

한정훈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3672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전자우편: thunderh@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